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8. 1. 18.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항공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진환, 사무관 박정권, 주무관 강이원 • ☎ (044) 201- 4204, 4184, 4183	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7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평창올림픽 하늘길 문제없다” 양양공항 종합점검 마쳐

최초로 대형 항공기 실제 이착륙 종합 점검…성공적 행사 지원에 최선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찾는 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위해 양양공항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16일(화) 14:30, 양양공항에서 최초로 대형 항공기(E급 B777-200)를 투입하여 실제 이착륙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하였다.
- 양양공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‘14년부터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 등 29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22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.
 - 주요 개선사항으로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의 유도로를 확장하였으며 대형기 주기장을 신설하였다.
 - 이를 통해 양양공항의 항공기 주기 능력이 4대에서 7대(B737)로 향상되었고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도 C~D급 중형기(B767, A320)에서 E급 대형기(B747, B777, A330)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되었다.
- 평창올림픽 기간 중 양양공항 국제여객 항공기 운항은 인천-양양을 운항하는 내항기* 68편, 외국 전세기 9편, 부정기편 29편, 비즈니스 항공기(자가용) 34편 등 총 140여대가 운항할 예정이며, E급 대형 항공기는 총 10 여편이 양양공항에 착륙할 계획이다.

* 내항기 : 해외 항공편이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환승, 양양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 수속함
국내 구간을 운항하지만 출입국수속(C.I.Q)업무는 국제선에 준해 처리

○ 또한, 내항기 운영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시행할 평창 올림픽 참가 선수 등에 대한 **출입국.세관.검역(CIQ)** 서비스를 양양공항에서 제공하여 **환승시간 절감, 중량 수화물을 일괄 처리하는 등** 수송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

□ 국토교통부는 양양공항 전반에 대한 항공기 운항점검을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16일에는 항공정책실장 주관으로 대형기가 실제 이착륙하는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하였다.

○ 이번 항공기 운항점검은 국토부, 한국공항공사, 대한항공, 평창조직위 등이 참여하여 **내항기 운영, 여객 출입국, 보안, 계류장 지상안전, 소방대응, 제설, 활주로 및 유도로, 항공관제** 등 항공 전 분야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졌다.

□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“평창올림픽 기간 중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을 위해 **공항의 전반적인 안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.**”라며 “국토부는 항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**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**를 갖추 **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**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박정권 사무관(☎ 044-201-4184)에게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평창올림픽 대비 양양공항 준비상황

▶ (개항배경) 속초공항 폐쇄에 따라 접근성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'02.4월 국제공항으로 개항(활주로 2500m, 1본)

▶ (상주인원) 222명

▶ (운항) 월간 약 3천대(조종훈련기 90%),
- 국내선 주 28편(제주, 김해)
- 국제선 주 10편(블라디보스톡, 기타쿠슈, 카오슝)

* 취항사 : 코리아익스프레스(50인승)

야쿠티아항공, 타이거항공(부정기)



○ (공항개선사업) 평창올림픽 대비 약 310억원('14~'17) 투입, '17.12.22 완료

* 대합실 재배치, 주기장 개선, 활주로 재포장, 유도로 확장 등 29개 사업 추진

○ (주기장 및 유도로) 항공기수용능력 4대 → 7대(B737급), E급(B747) 1대 주기 가능

* E급 대형항공기(B777) 실제 공항착륙 후 활주로 및 주기장 실제 시운전 예정('18.1.16)

1 공항수용능력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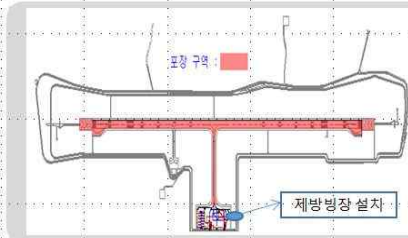
▶ 이동지역 시설개선

항목	기존 시설	기준(E급)	비고
활주로 회전패드(폭)	80m	95.7m	✓ 확 장
유도로 곡선부	0급	E급	✓ 확 장
주기장	0급	E급	✓ 확 장
제방방장	없음	E급	✓ 신규설치
제트블러스트패드	없음	E급	✓ 신규설치
활주로 폭	45m	45m	-
활주로갓길 폭	60m	60m	-
유도로 폭	23m	23m	-

대형항공기(E급) 수용을 위한 시설 확대

□ 평창올림픽 대비 양양공항 이동지역 주요 개선사항

▶ 활주로 재포장 및 제빙빙(De-icing)패드 설치공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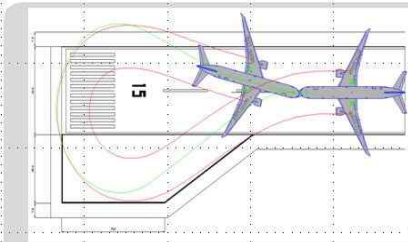
사업기간: '16. 8. 2 ~ 12. 20

항공기 De-icing을 위한 E급 제빙빙 패드 (1식) 설치

활주로 균열부, 포장탈락 보수: 136,422m²

효과: 대형E급 항공기 시설 확충,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

▶ 활주로 터닝패드 및 유도로 확장공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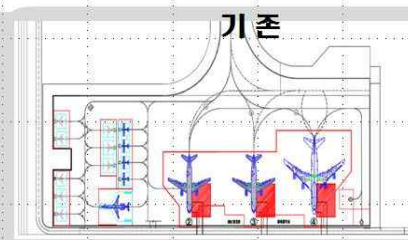
사업기간: '17. 4 ~ 11월

E급 대형 항공기 회전을 위한 터닝패드 확장(10,700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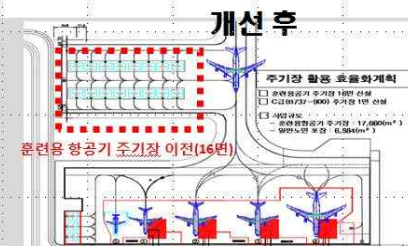
유도로 곡선부 확장(3,950m²)

효과: 올림픽 대비 대형 항공기 취항능력 확보(D급→E급)

▶ 주기장 추가 설치



개선 후



사업기간: '17. 4 ~ 11월

평창올림픽 대비 민항기 전용 주기장 부족

훈련기와 민항기 간 주기장 동선 분리필요 (사고예방)

계류장 확장(25,000 m²)

※ 기존: 48,526 m² → 개선: 73,526 m²

항공기 수용능력 향상(기존 4대 → 개선 5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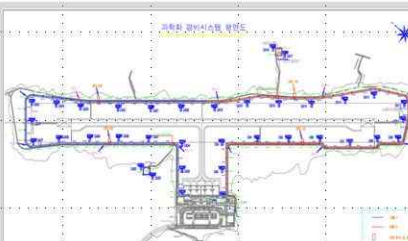
※ 기존: E급(1), D급(2), B급(1)

개선: E급(1), D급(2), C급(1), B급(1)

훈련기 주기장 이전(16면)

※ 기존: 12대 → 개선: 16대

▶ 경비과학화 시스템 및 CCTV 구매설치



사업기간: '17. 5 ~ 11월

공항 외곽의 효율적 감시를 위한 CCTV교체 (150대)

공항 외곽 무단침입방지 장력시스템(8.3km) 도입

효과: 대회기간 중 공항 이용객의 안전 도모

□ 평창올림픽 기간 양양공항 항공기 운항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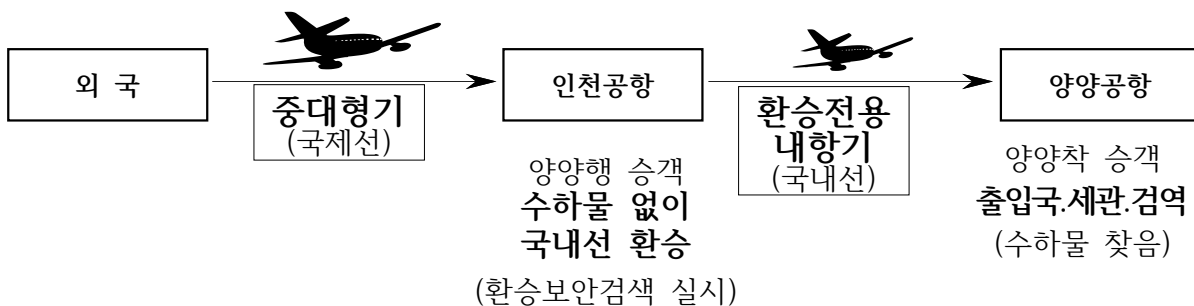
(단위: 회)

구 분	B급 항공기 (ERJ-145)	C급 항공기 (B737, A320)	D급 항공기 (B767)	E급 항공기 (A330, B777)	합계
국내선	0				0
내항기		64		4	68
전세기		1	2	6	9
부정기편	12	17			29
비즈니스젯	34				34
합계	46	82	2	10	1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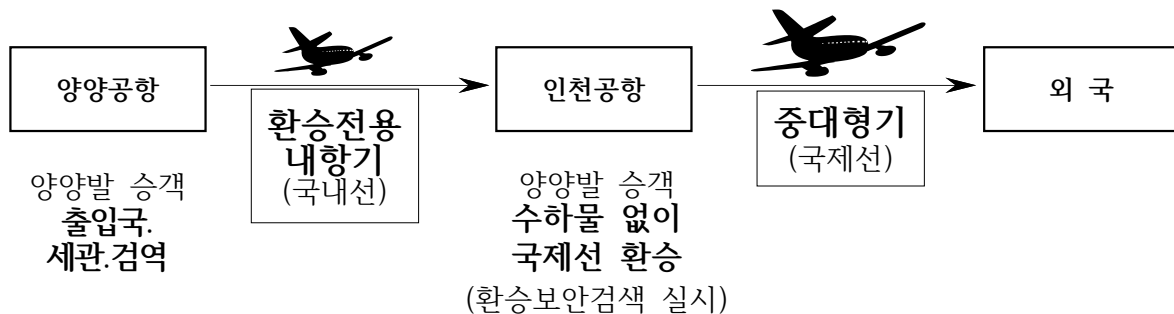
- * 내항기(대한항공) 인천-양양 일일 1~3편
- * 전세기(대한항공, ANA, JAL) NBC방송단, Discovery 방송단, 일본선수단 수송 등
- * 부정기편 : 야쿠티아항공 블라디보스톡(수), 하바로브스크(토), 타이거에어 가오슝(수,토)
코리아익스프레스 기타쿠슈(화,목,일), 젯스타퍼시픽 다낭(2/4)

□ 국제선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개념

(입국시)



(출국시)



※ 국내 공항간을 운항하는 내항기이나, C.I.Q 업무는 국제선에 준해 처리

□ 인천~양양 구간 내항기 운항 기대효과

- 인천공항에서 시행할 평창 올림픽 참가 선수 등에 대한 출입국·세관·검역(CIQ)서비스를 양양공항에서 제공하여 환승시간 절감, 스키 등 중량 수하물 절차를 양양공항에서 일괄 처리하는 등 수송 편의 제고

참고 2

양양공항 및 대형항공기 이착륙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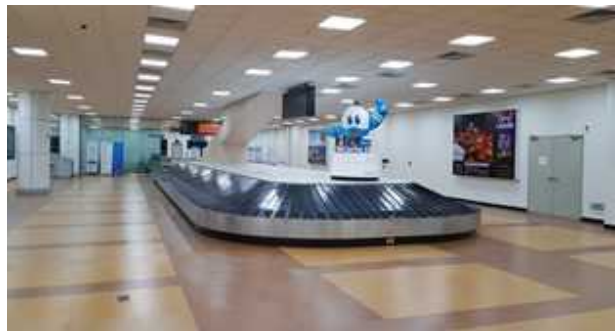
양양공항전경



여객 대합실



출입국 구역



수화물처리 구역



신설 E급항공기 주기장 및 탑승교



제설차량 및 소방대



터미널 앞 주차장



확장된 계류장 및 항공기 제설작업대

	
착륙	착륙 활주
	
유도로 진입	주기장 진입
	
탑승교 접속	주기 전경
	
이륙준비	이륙(B777-200)